함께 푸는 미스터리〈10〉

死者의 재판

"저의 오빠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강수미씨는 울부짖었다. "경찰은 오빠가 여자 친구를 쏴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검시(檢屍)결과 오빠는 유죄로 밝혀질 거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빠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 ! 제발 오빠의 무죄를 밝혀 주십시요." 강수미씨의 간청은 차라리 절규에 가까웠다.

최율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저명한 범죄전문가가 죽은 사람의 무죄를 밝혀 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죽은 강풍성형사는 옛 제자였고 매우 기묘한 사건이었기에 최율교수는 강수미씨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교수는 강수미씨를 태워 서울에서 멀지 않은 신도시 B시에 있는 그녀의 집에 데려다 준 뒤 그곳 경찰서를 찾아 노만석 수사과장을 만났다.

"강풍성형사는 우리 과에서 함께 일했습니다만 장미령씨를 살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노과장은 최교수에게 증거철을 보여 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선생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조사를 마칠 때까지 심리를 중단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최율교수가 읽은 첫번째 공술서에서 노과장은 바로 2일전 발생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10월 10일 하오 8시,본인과 김기만형사는 장미령씨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했다. 장씨는 어떤 남자가 그녀의 정원에 숨어 있다고 보고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마음이 몹시 심난한 장씨와 대면했다. 그녀는 밖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집을 나와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박다선부시장을 만났다. 그는 산책을 나왔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교수가 두번째 읽은 김기만형사의 공술서는 다음과 같다. " 10월10일 하오 10시, 이장상형사가 장미령씨집에서 총소리가 났다고 보고했다. 곧 출동한 본인은 장씨집 현관 앞에 서 있는 이형사를 발견했다. 이형사는 본인에게 장씨가 집안에서 죽었다고 말했다. 본인은 안으로 들어가 그녀가 거실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슴에 총격을 받았다." 김형사의 공술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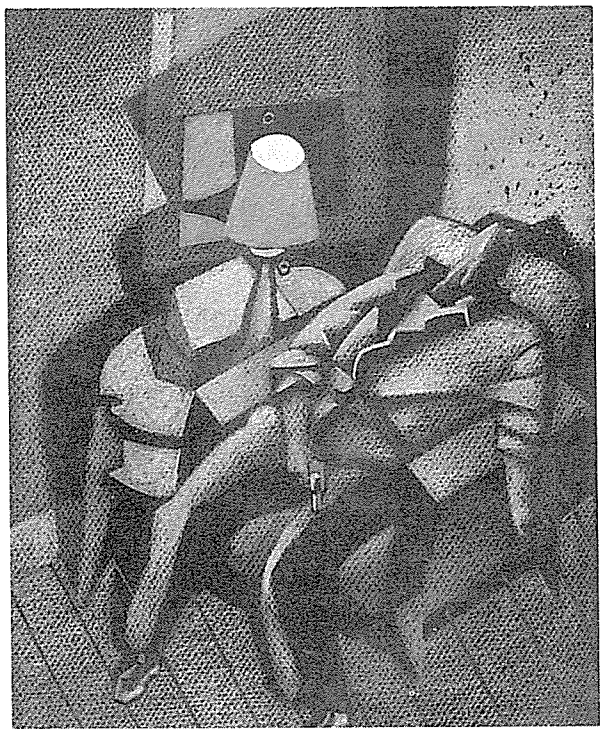
"이형사는 구급차를 불렀으며 노만석 수사과장에게도 무전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형사는 조금전에 장미령씨를 방문하기 위해 그 집에 들렀는데 집안으로부터 강풍성형사가 뛰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형사는 또 틀림없이 강형사가 장씨를 쐈으며 그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강형사집으로 가서 그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약 3분 후에 구급차가, 약 10분 후에는 노과장이 도착했다. 구급차가 시체를 옮긴 뒤 노과장과 본인은 별도의 순찰차로 강형사집으로 갔다.

다시 노과장이 작성한 공술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하오 10시25분. 강풍성형사집으로 향하던 중 우리는 무선을 통해 강형사의 이웃인 목소리씨가 강형사집에서 나오는 총소리를 들었다는 보고를 접했다. 김형사와 본인이 강형사집에 도착했을 때 이장상형사는 앞마당에 서 있었다. 이형사는 우리의 도착이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강형사는 총으로 자결했다고 말했다. 우리 세사람은 집안으로 들어갔다. 강형사는 의자속에 푹 빠져 있었다. 그는 오른쪽 관자놀이를 총격당했다. 그의 오른 손에는 권총이 쥐어 있었다.

본인은 구급차를 불렀다. 차가 도착하기 전 배차계가 본인에게 무선으로 박다선부시장이 총상으로 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 왔다. 박부시장은 하오 10시15분경 집

으로 가는 길에 강풍성형사와 만나게 되었는데 강형사는 장미령씨가 죽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머니에서 총을 끄집어내어 자기 어깨를 쏜 뒤 달아났다고 말했다.

다음 공술서는 죽은 장미령씨의 친구인 진성자씨의 것이었다. "장미령은 나에게 밤마다 누군가 자기를 훔쳐보고 있어 무서워서 몰래 호신용으로 구한 권총을 집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만석 수사과장은 그 살인무기를 나에게 보여주었



다. 그것은 장미령의 총같이 보였다. " 진성자씨는 이어 이장상씨와 강풍성씨는 서로 미워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공술서는 짤막짤막한 것들이었다. 목소리씨는 강풍성씨댁에서 나온 2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노과장은 목소리씨가 잘못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목소리씨는 나이가 많은 편이지요. 탄도조사보고에 따르면 총은 모두 3번 발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강수미씨는 장미령씨가 이장상형사와 두어번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오빠 강풍성씨와 장미령씨는 당분간 단교를 했으나 다시 좋은 사이로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강수미씨는 오빠가 장미령씨를 잃는다면 살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한 것으로 미루어 오빠는 죄책감이 아니라 비통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상형사의 또 다른 짧은 공술서는 그와 장미령씨가 데이트를 한 것을 확인하고 장미령씨는 살해되던 날 밤 강풍성형사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교수는 다음차례로 물적인 증거를 검토했다. 32구경의 권총이 있었고 3발이 발사되었다. 총탄중에서 장미령씨에게서 한개 그리고 강풍성형사에게서 한개 등 모두 2발을 회수했다. 박다선부시장을 부상시킨 총탄은 곧바로 그의 어깨를 관통한 뒤 발견되지 않았다. 탄도조사결과 강풍성형사의 손에서 발견된 총은 장미령씨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장미령씨와 강풍성씨를 죽이고 박부시장을 부상시키는데 사용한 총임에 틀림없었다. 박부시장의 피로 물들은 셔츠는 증거로써 보관되었다. 박부시장은 총을 맞은 뒤 셔츠를 벗고 흐르는 피를 멈추기 위해 어깨를 둘러쌌다고 말했다. 법의학자들은 셔츠에 뚫린 2개의 구멍은 32구경총에서 발사된 총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최교수는 당직일지를 살펴보았다. 사소한 교통사건 한건을 제외하면 그날 밤 경찰에 걸려 온 전화는 공술서에서 이미 언급한 것들이 전부였다. 다만 한 기록은 호출을 받았으나 호출자가 아무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고 적혀 있었다. 이 호출시간은 하오 9시45분이었다.

최교수가 증거에 대한 검증을 마쳤을 때 노만석과장에게 범죄현장으로 갈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노과장은 최교수를 태우고 강풍성형사집으로 달려갔다. 최교수는 집안을 걸어가면서 핏자국이 남은 의자를 본 뒤 마당으로 나왔다. 최교수는 따라 온 노과장을 보고 물었다.

"노과장, 나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장미령씨를 밤에 훔쳐보는 습관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아뇨, 장미령씨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중 어느 누구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물었습니다."

" 고맙소. 내가 필요한 것은 모두 알았소. 이제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노과장을 도와 드릴 수 있을 것 같소."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과연 죄가 없었을까? 〈春堂人〉

〈해답은 98쪽에〉